

12월 12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방향성 결정지을 FOMC... 어느 쪽이든 극심한 변동성 불가피

서울, 12월1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금주에는 주요국 핵심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75-1,345원이다.

이번 주에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와 내년 초 국내외 금융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굵직한 재료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등 주요국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 데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의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그리고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등 핵심 지표 결과도 나온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예상치를 웃돌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례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는 시장 변동성을 또 한 번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미국 11월 CPI 상승률은 0.3%로 10월 0.4%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연준 피벗 기대를 바탕으로 단기 랠리를 펼치기도 했던 위험자산과 통화들은 연준 회의 결과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1

2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50bp로 줄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충분히 반영된 만큼 이보다는 연준 점도표 상의 최종 금리에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연준이 제시한 내년 말 최종 금리는 4.6%인데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최종 금리 상향 조정을 시사한 터라 결국 시장 관심은 그 금리 인상폭에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제시하는 최종 금리가 5% 정도면 시장 전망과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해석과 전망을 토대로 달러/원 환율의 단기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시장 유동성이 유독 부족한 상황에서 원화 보폭이 과도하게 확대될 리스크는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정점 기대가 충족될지도 살펴봐야 하겠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중국의 핵심 경제지표 결과 이후 시장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산만해지는 최근 패턴은 미리 고려할 사항이다.

이번 주는 연말까지 리스크 온 무드가 강화되며 달러/원 환율이 박스권 하단을 한 단계 더 낮추는 시도

에 나설지, 최근 시장 움직임에 대한 과격한 되돌림이 일어날지 결정지를 중요한 주다. 따라서 시장의 양방향 변동성 리스크를 모두 열어두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2월12일(월)

- 관세청: 12.1~10일 수출입 현황
- 금융감독원: 2022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기획재정부: 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08:00)
- 한국은행: 2022년도 BIS 주관「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잔액 부문)」결과 (12:00)

12월13일(화)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12:00)
- 한국은행: 2022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통계청: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14:00)
- 한국은행: 2022년 22차(11.24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12월14일(수)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7:30)
- 통계청: 2022년 11월 고용동향 (08:00)
- 기획재정부: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차 회의 (10:00)
- 금융위원회: 국가산업전략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11:30)
- 한국은행: 2023년중 경제통계국 작성통계 공표 일정 (12:00)
- 기획재정부: 1차관 인구위기대응 TF (14:00)

12월15일(목)

- 한국은행: 202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07:30)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10:00)
- 기획재정부: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12:00)
- 금융감독원: '22.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2:00)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12:00)
- 금융위원회: ESG공시기준 논의를 위한 KSSB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 (배포시)

12월16일(금)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기획재정부: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기획재정부: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14: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2월12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YY	11월		9.1%
12월12일	08:50	일본	기업경기실사지수	4분기		1.7%
12월13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1월		-88.00B
12월13일	20: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11월		91.30
12월13일	22:30	미국	CPI MM, SA	11월	0.3%	0.4%
12월12~19일		중국	총 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1월		11.8%
12월12~19일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11월	1,325.0B	615.2B
12월12~19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YTD)	11월		14.40%
12월14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10월		-4.6%
12월14일	08:50	일본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4분기		8
12월14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10월		-2.6%
12월14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10월	-1.2%	0.9%
12월14일	21: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12월9일 주간		204.2
12월14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1월		-0.2%
12월14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1월		-0.3%
12월15일	08:50	일본	수출 YY	11월		25.3%
12월15일	08:50	일본	수입 YY	11월		53.5%
12월15일	08:50	일본	무역수지	11월		-2,162.3B
12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11월		-1.6%
12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1~11월	5.7%	5.8%
12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11월	3.9%	5.0%
12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11월	-2.4%	-0.5%
12월15일	22: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2월		4.50
12월15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5일 주간		230k

12월15일	22:30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12월		-19.4
12월15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1월	-0.1%	1.3%
12월15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1월	-0.2%	0.1%
12월16일	00:00	미국	기업재고 MM	10월		0.4%
12월16일	00:00	미국	소매재고	10월		-0.4%
12월16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12월		49.0
12월16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잠정치	12월		50.3
12월16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2월	47.3	47.1
12월16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2월	48.5	48.5
12월16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2월		47.7
12월16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2월		46.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12일(월)

- ⊙ 티프 맥클럼 캐나다은행 총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공회의소 연말 담화 (13일 오전 5시40분)

12월13일(화)

- ⊙ 영란은행, 12월 금융안정보고서 발행 (오후 7시30분)
- ⊙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11월 CPI 발표 (14일 오전 1시)
- ⊙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14일까지)

12월14일(수)

- ⊙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 2022년 호주결제망(AusPayNet) 연례 행사서 기조 연설 (오전 7시30분)
- ⊙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15일 오전 4시)·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15일 오전 4시30분)

12월15일(목)

- ⊙ 노르웨이중앙은행, 금리 발표 (오후 6시)·기자회견 (오후 6시30분)
- ⊙ 영란은행, 금리 발표·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후 9시)
- ⊙ ECB, 금리 발표 (오후 10시15분)·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10시45분)
- ⊙ 뉴욕 연방은행, 12월 엠파이어 제조업 서베이 발표 (오후 10시30분)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2월 제조업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10시30분)

12월16일(금)

⊙ 러시아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오후 7시30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CPI와 올해 마지막 연준 FOMC

이번 주 투자자들은 13일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하루 뒤인 14일 발표되는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 결과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월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전문가들의 예상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을 심어준 바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CPI 상승률은 0.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전 75bp에서 50bp로 축소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며, 시장은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연준 성명과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 ECB, 영란은행 등 다른 중앙은행들도 정책회의

오는 15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 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유로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전망을 확신시켰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은 ECB도 이번에는 금리를 이전과 같은 75bp가 아닌 50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날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3.5%로 50b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위스와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이날 각각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 영국 인플레이션

높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으로 인해 지난 10월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상승률은 41년 만의 최고인 11.1%를 기록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는 14일 발표될 영국의 11월 CPI 상승률이 10.9%로 낮아져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신호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긴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왑 시장에서는 영국의 금리가 내년 9월 4.6%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 중국 11월 경제지표

중국이 지난 3년간 이어진 엄격한 코로나19 억제조치를 차츰 완화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국내 여행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도 다시 커졌다.

그러나 11월 무역지표가 부진을 보인 가운데 대외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시장은 15일 발표될 중국 11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지표가 또 한 번 경제 활동 둔화를 시사할지 주목하고 있다.

⊙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PMI

이번 주에는 미국, 영국, 유로존의 12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도 발표된다.

유로존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기업 활동은 부진해 6개월 연속 수축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P글로벌의 유로존과 미국 종합 PMI는 각각 지난달의 47.8과 46.4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경기 확장-수축 분계선인 50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삭소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의 대담한 내년 시장 전망

제이미 맥키버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월07일 (로이터) -

일부 투자은행들이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다소 충격적인 내년 시장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의 전망은 언뜻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돌아봤을 때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작년 이 시기에도 서방국가들의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미국의 40년 만의 최대폭 금리 인상,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등의 전망은 지배적인 의견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전 세계 거시경제 환경, 정책·정치적 역학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해졌고, 평균적인 경제분석·시장모델은 거의 들어맞지 않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삭소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는 각각 '터무니없는 예측', '2023년 시장 서프라이즈'라는 주제로 내년 전망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삭소은행 애널리스트들은 노트에서 "가능성이 낮고 과소평가된 이벤트들이 만약 발생한다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정치·대중문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로버트센 스탠다드차타드 리서치 담당자는 "이런 시나리오들은 상호 독립적이며 경제적·지적으로도 서로 일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놀라운 점은 이 시나리오들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외 위안/달러 환율이 6.40위안까지 내리는 것? 유로/달러 환율이 1.25달러까지 오르는 것? 나스닥지수가 50% 더 하락하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것? 유럽연합군이 탄생하는 것? 공식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가격 제한이 이뤄지는 것? 언뜻 보기엔 이런 주장들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정치적·경제적·금융적 혼란을 돌아보면, 이런 시나리오들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심지어 이들 두 개 은행들이 이전에 내놓았던 과감한 전망들 중 실제 실현된 것들이 있다.



먼저 스탠다드차타드가 내놓은 위안과 유로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달러/위안 환율이 6.40위안이 되려면 위안 가치가 현재보다 약 9% 정도 절상되어야 하는데 작년 위안이 9% 절하된 것을 감안하면 그리 비현실적인 전망은 아니다. 또한 달러/위안 환율은 불과 8개월 전 6.40위안을 기록한 바 있다.

역만장자 투자자인 빌 애크먼이 홍콩달러 페그제가 39년 역사를 마감하고 폐지될 것이라고 베팅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차라리 이보다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전망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어보이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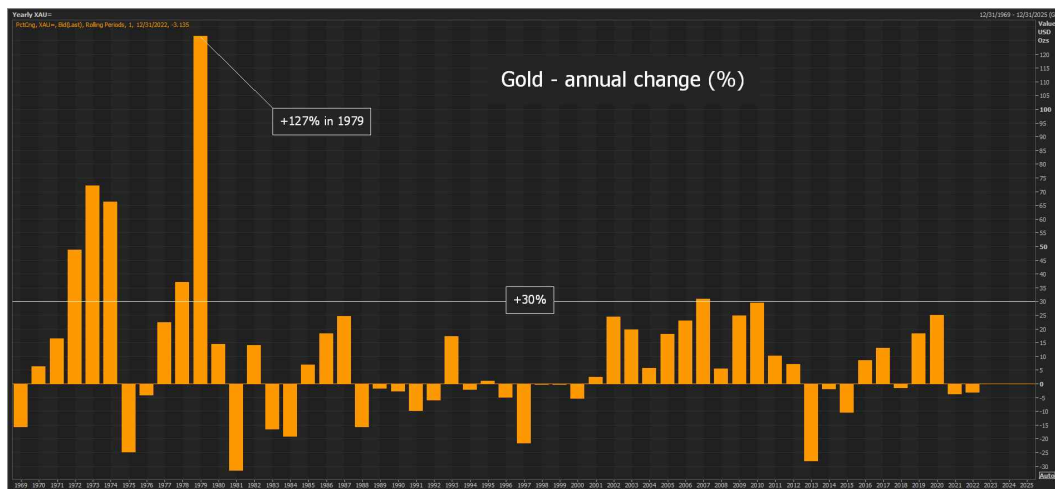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유로/달러 환율이 20% 오른 1.25달러를 기록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전망은 아니다. 유로는 9월까지만 해도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미 그 이후 10% 반등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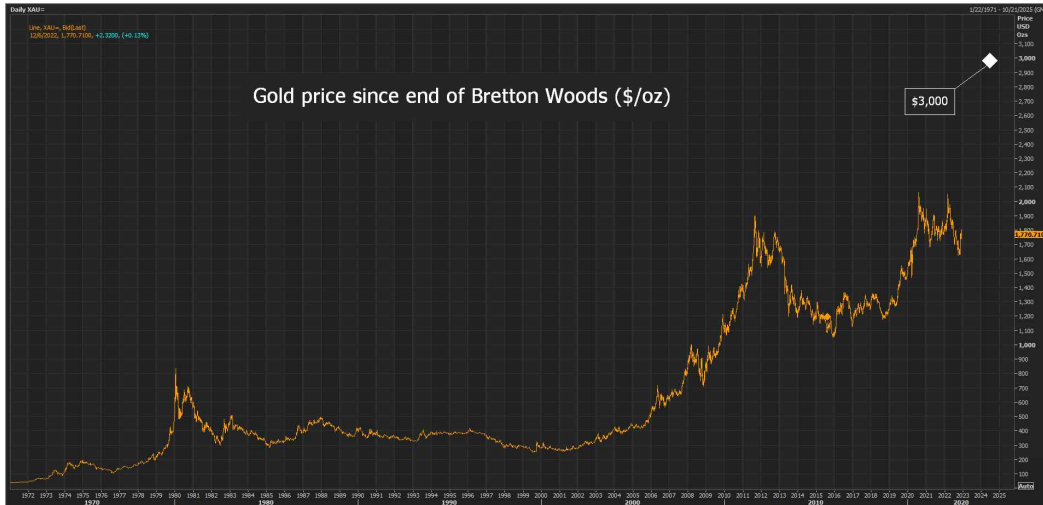
이런 환율 전망들이 실현되기 위한 경제·금융·정치적 환경이 조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작스럽게 종식된다면 앞서 말한 전망에 반해 베팅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도이치방크의 내년 기본 경제 전망에는 심지어 유럽 경제 성장률이 미국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소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군이 구성된다면 유로/달러 환율이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삭소은행은 유럽연합군이 구성된다면 10조유로 규모의 자금이 회원국들의 신규 채권 발행으로 총당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가 크게 촉진되고 유럽 국채 시장의 통합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배경에서 두 은행은 금값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금값이 3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삭소은행은 약 70% 올라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은 지난 1979년이 마지막이다. 올해는 1970년 후반과 1980년대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따라서 금값이 이 수준까지 오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

때론 터무니없어 보이는 전망이 시간이 지나면 맞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삭소은행은 2015년 브렉시트와 2017년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미리 예상한 바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작년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만약 당신이 충분한 진흙을 벽에 던진다면 일부는 달라붙을 것이다. 두 은행들의 대담한 내년 예상 중 어떤 것이 적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삭소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의 내년 전망 시나리오:

- 삭소은행: 에마뉘엘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 사임, 억만장자들의 수 조달러 규모의 에너지 관련 맨해튼 프로젝트 결성,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로 금값 온스당 3,000달러 기록, 유럽연합군 구성, 2030년까지 모든 육류 생산 금지 국가 간 합의, 브렉시트 취소 국민투표 실시, 공식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광범위한 가격 통제 도입, 중국·인도·OPEC+ 국가들의 국제통화기금(IMF) 탈퇴 및 새로운 거래 방식 도입, 일본의 달러/엔 페그제 도입, 조세피난처 규제 등
- 스탠다드차타드: 브렌트유 가격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급락, 유로/달러 환율 1.25달러로 상승, 연방준비제도 200bp 금리 인하, 나스닥지수 50% 하락해 6,000포인트 기록, 달러/위안 환율 6.40으로 하락, 식료품 가격 급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증폭, 금값 30% 상승, 미국 공화당 의원들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권오신 기자)

((Ohshin.Gw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01.3	-0.1%	-8.6%	-8.6%	유로	1.0532	-0.1%	-7.4%	-6.9%
100엔 대비	955.0	1.2%	8.2%	+1.8%	엔	136.58	-1.7%	-15.7%	-10.3%
유로 대비	1,373.7	-0.4%	-1.6%	-1.9%	위안	6.9598	1.3%	-8.7%	+2.7%
위안 대비	187.44	-1.3%	-0.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3,476.46	-2.8%	-7.9%	+18.7%
코스피	2,389.04	-1.9%	-19.8%	+3.6%	나스닥	11,004.62	-4.0%	-29.7%	+21.4%
코스닥	719.49	-1.8%	-30.4%	+6.8%	S&P500	3,934.38	-3.4%	-17.5%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19.14	1.3%	-17.6%	-4.9%
국고채 3Y	3.657%	4.1bp	185.9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566%	-6.6bp	155.5bp	+67.6bp	미국채 2Y	4.340%	6.0bp	361.0bp	+61.0bp
국고채10Y	3.491%	-9.2bp	124.1bp	+53.7bp	미국채 10Y	3.580%	9.0bp	207.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71.59	-10.9%	-5.1%	+55.8%	한국 5Y	51.9bp	2.9bp	29.8bp	-0.7bp
금(현물)	1,796.85	-0.1%	-1.7%	-3.6%	일본 5Y	25.2bp	-0.1bp	7.5bp	+2.1bp
TR상품지수	3,315.38	-0.7%	-0.7%	+24.6%	중국 5Y	75.2bp	1.9bp	34.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